동남아에서 목재펠릿 10만톤 생산

녹색사업단, 솔라파크와 MOU 체결 … 1만ha에 2012년부터 조림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인도네시아에 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선다.

녹색사업단은 7월19일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 및 솔라파크 인도네시아와 3자간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조림목을 활용해 우드펠릿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고 7월21일 발표했다.

Java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국영 영림공사는 1만ha의 조림지를 제공하고, 녹색사업단은 제공된 조림지에서 속성 조림사업을, 목재펠릿 생산 기술력을 가진 솔라파크 인도네시아는 생산된 조림목을 활용해 목재펠릿을 생산하게 된다.

녹색사업단은 2011년 하반기에 조림 대상지 1만ha에 대한 조림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년부터 조림을 실시하고, 3-4년 후 생산되는 목재펠릿을 활용해 <바이오매스 발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조림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으로 우리나라 보다 5-10배 이상 나무가 빨리 자라는 천혜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사업단은 목재바이오매스용 속성조림을 통해 2016년부터 경유 5만리터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10만톤을 생산해 국내시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목재펠릿 생산 MOU는 2009년 3월 인도네시아 산림부장관과 우리나라 산림청장이 체결한 <목재바이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녹색사업단 공영호 해외사업본부장은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조림을 통한 산림면적 증가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이 될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7/21>